

목회학 석사학위 청구논문

칼빈의 성경 해석 방법론에 근거한
성경 해석 방법과 그 실제(고전 1: 18 - 25)

(Biblical Hermeneutics and the Interpretation of
1 Cor. 18-25, Based on Calvin's Hermeneutics Principle)

2006년 6월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과 전공

민 일 홍

칼빈의 성경 해석 방법론에 근거한
성경 해석 방법과 그 실제(고전 1: 18 - 25)

(Biblical Hermeneutics and the Interpretation of
1 Cor. 18-25, Based on Calvin's Hermeneutics Principle)

지도 이 경 석 교수

이 논문을 민 일 홍의 신학석사 (M. Div)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6월

안양 대학교 신학 대학원

목회학과 전공

민 일 홍

이 논문을 민 일 홍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정함.

2006년 6월 일

주심 _____

부심 _____

위원 _____

위원 _____

위원 _____

Biblical Hermeneutics and the Interpretation of
1 Cor. 18-25, Based on Calvin's Hermeneutics Principle

by

Il-Hong, Min

A THESIS

Submitted to the faculty of
ANYANG UNIVERSITY
in partial fulfi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DIVINITY

Graduate School of Theology(M. Div.)

July 2006

감사의 글

목회자가 되기 위한 기본 소양 과정을 모두 마치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7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려움 가운데서도 항상 최선의 것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한 제자의 논문을 끝까지 사랑과 정성으로 지도해주신 이경석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신학의 방향을 잡지 못하던 때에 목회자로서의 방향과 개혁신학의 아름다운 유산을 전수해주신 김영규, 김성봉, 이승구, 조병수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귀한 목사님들의 가르침을 통해 성경을 바로 배우고 전할 수 있는 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신학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부족한 자를 지도해 주셨던 한성기 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교수님들의 지도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길이 때때로 힘들고 외롭게 느껴질 때 함께한 신학마을의 귀한 동역자들, 신대원 동기 전도사님들께도 감사드리며, 또한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준 믿음나무 친구들, 특별히 먼 곳에서도 언제나 기도로 함께하는 이성민 선교사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시는 선진교회 박영진 목사님을 비롯한 순수한 성도님들,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병방중앙교회 김종길 목사님과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아들을 사랑으로 바라보시며 언제나 한결같이 믿어 주시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묵묵히 후원해주시는 형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돌아보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이 만큼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귀한 사랑에 어긋나지 않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군사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를 바라보시며 기대하시는 분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전하는 자로 인정받도록 준비하며, 늘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6년 7월
민 일 홍

목 차

I. 서론	1
A. 문제제기	1
B. 연구목적	3
C. 연구방법 및 범위	4
II. 성경 해석학의 이해	5
A. 해석의 어원	5
B. 해석학의 정의	6
C. 해석학의 필요성	7
1. 성경적 근거	8
1) 성경적 근거	8
2) 예수님의 구약사용	10
2. 주석적인 필요성	11
1) 역사적 간격	11
2) 문화적 간격	12
3) 언어적 간격	12
4) 사상적 간격	13
III. 칼빈의 성경 해석 원리와 방법	14
A. 칼빈의 해석 원리	14
1. 칼빈의 해석 원리에 있어서 전제들	14
1) 성경의 이중 저작성	14
2)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	16
2. 성경 저자의 의도	16

3. 성경이 성경을 해석	17
4. 기독교적 해석	18
5. 구속사적 해석	19
6. 영해의 배척	20
B. 칼빈의 해석 방법	20
1. 문학적 접근	21
1) 상황적 접근	21
2) 어원적 접근	22
3) 문맥적 접근	22
4) 모형론적 해석	23
2. 간결한 방법과 용이한 방법	24
1) 간결한 방법	25
2) 용이한 방법	28
IV. 성경 해석 방법론과 그 실제	32
A. 성경 해석 방법론	32
1. 역사적 접근	32
2. 문법적 접근	36
3. 신학적 접근	38
B. 해석의 실제	40
1. 역사적 접근	40
2. 문법적 접근	42
3. 신학적 접근	44
V. 결론	47
참고문헌	49

I. 서론

A. 문제제기

개혁주의 신앙은 존 칼빈(J. Calvin, 1509-1564)의 성경적 신앙관을 계승한다. 개혁주의 신앙은 특히 칼빈의 경건하고 바른 성경이해에 의하여 확립된 후, 그를 바르게 추종했던 17세기 이후의 영국의 청교도들과 화란의 개혁주의 교회와 18세기 이후의 미국 정통장로교회(구 프린스턴 학파 및 웨스트민스터 주경 학파)에 의해 계속 계승되고 보수되어 전하여 오는 신앙의 사조이다.¹⁾

개혁주의 전통은 바른 성경 이해에 근거한 경건한 신앙을 무엇보다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전통 속에 설교는 예배의 다른 어떤 요소보다도 중요하게 간주되었다. 말씀의 바른 선포와 그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기는 것은 예배의 핵심적 요소로 자리하였다. 칼빈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해석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동시에 성령의 조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생도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

이러한 주장은 칼빈 뿐 아니라 종교 개혁자들의 주장이기도 하다. 종교 개혁은 개혁자들이 성경의 중요성을 발견함으로써 시작되었다.³⁾ 이는 마치 구약에 나오는 여호사밧의 부흥운동(대하 17장)과 요시아(대하 30장)나 히스기야(대하 34-35장)의 종교 개혁이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에 비추어 회개하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온 것과 같다. 개혁자들은 그들의 개혁 사상과

1) 한제호, 『성경의 해석과 설교』 (서울: 도서출판 진리의깃발, 1996), pp. 127.

2) Ibid, pp. 128.

3) 손석태, 『칼빈과 개혁신학』 (광주: 광신대학교출판부, 1999), pp. 37

개혁 작업의 기초를 모두 성경에서 이끌어냈다. 그들의 개혁 신학이 중세 신학과 다른 점은 바로 성경 해석의 차이점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그들은 성경적인 해석 원리를 발견했고 이것을 통하여 새로운 개혁 신학의 토대를 쌓고, 체계를 세워간 것이다. 이를 볼 때 종교 개혁은 성경 해석의 개혁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설교하는 것은 개혁주의 신앙의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바른 해석에 근거한 설교의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목회자들은 설교의 위기를 맞이했다고까지 말한다. 오늘 우리는 그야말로 설교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 예배의 설교뿐 아니라 TV, 라디오 등 방송 매체를 통한 설교, 유명 설교자들의 설교 집, 더 나아가 인터넷 설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설교를 접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다수의 설교가 성경 본문에 대한 바른 해석이 없이 세상적인 개념들과 함께 혼용되어 단지 교훈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설교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관한 이야기’나 ‘기독교 문화 강좌’, 심지어는 ‘세상사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음을 본다. 이와 같이 성경의 본문이 충실히 해석되지 아니하고 전달되는 설교는 이미 생명력이 잃은 설교가 된다. 따라서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적인 설교에 대한 시대적 요청에 직면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떠한 설교가 성경적인 설교인가? 성경적인 설교 방법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은 보다 근본적으로 성경적인 해석 방법에 관한 질문으로 귀결된다. 성경적인 해석 방법이 지향하는 바는 성경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하시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찾는 것이다. 즉, 본문의 명확한 의미를 찾는 것인데, 고든 피(Gordon D. Fee)와 더글라스 스튜어트(Douglas Stuart)는 “이러한 목표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개인 상식(enlightened common sense)이다”⁴⁾고 주장한다. 성경적인 해석에 근거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는 것은 설교자의 큰 특권이자 마땅히 지향해야 할 바가 아닐 수 없다. 설교자는 자기의 생각이나 자의적인 해석을 근거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에 대한 연구와 성령의 가르침을 통한 해석을 가지고 설교에 임해야 한다. 설교하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으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도를 전하여 영원히 죽을 인생을 영생의 길로 구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는 이 고귀한 특권을 부여 받은 설교자는 성경 본문의 뜻을 연구하여 바로 설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⁵⁾

B. 연구목적

성경 본문 해석에 있어 종종 대하게 되는 오류는 우리가 오늘의 시대 상황에 맞는 판단이나 가치에 근거하여 본문을 읽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성경 본문이 기록된 당시의 상황을 간과하고 우리의 필요에 근거하여 본문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성경 본문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뜻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 대체된 해석을 낳게 된다. 또한 이러한 해석이 다분히 성경 저자의 본래 의도를 왜곡함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을 성경 저자에 의해 의도된 본래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곤 한다.

이에 본 소고는 바른 설교를 위한 성경적 해석 방법의 원리를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칼빈의 성경 해석 방법론을 간략히 상고하고, 성경 해석학이 지향해야 할 바를 모색하려고 한다. 성경 본문의 본래적인 의미를 파악하려면 우리가 주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문에 귀를 기울일

4) 고든 피더글라스 스튜어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오광만 역,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1), pp. 22.

5) 콕안런, 『설교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pp. 28.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의 기록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한다. 본문의 바른 해석과 적용은 항상 본문의 바른 석의(exegesis)를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설교는 본문에 대한 바른 주석을 그 출발점으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고의 초점은 바른 석의를 위한 성경 해석 방법을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C. 연구방법 및 범위

제 1장은 서론으로 문제 제기과 연구 목적, 연구 범위와 방법에 대한 서술이다. 제 2장은 성경 해석학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해석의 어원, 성경 해석학의 정의 및 성경 해석학의 필요성에 관하여 고찰하는 것이다. 제 3장에서는 칼빈의 성경 해석학 원리 및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살필 것이다. 제 4장은 성경 해석학 방법을 역사적 접근, 문법적 접근, 신학적 접근의 총체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 해석 방법의 실제 적용으로 고린도전서 1:18-25을 역사적 접근, 문법적 접근, 신학적 접근에 근거하여 해석하는 것이다. 제 5장은 본 논고의 결론으로 본고의 의의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II. 성경 해석학(Hermeneutics)의 이해

A. 해석의 어원

“해석(Interpretation)”이란 말은 신구약 성경에 모두 나타난다. 먼저 구약 성경 창세기 40 : 41에 ‘**רָאָה**’이란 용어가 나오는데 이는 “해석하다(interpret)”는 뜻이고 그 명사형 ‘**רִאיוֹן**’은 “해석(interpretation)”을 의미한다. 구약에서 해석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꿈 해석을 가리킨다. 꿈은 주로 어떤 형태로 상징적인 것을 품고 있으므로 그 의미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하였던 것이다.⁶⁾

신약에서는 “해석하다(interpret)”란 의미의 동사 ἐρμηνεύω와 그 동의어 ἐρμηνύεια(해석), διερμηνεύω(해석하다, 설명하다), διερμηνευτής(해석자), επιλύσις(해석) 등 여러 가지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⁷⁾ 예를 들면, 누가복음 24:27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설명하시다(explained, interpreted)”로 해석된 헬라어는 διερμηνεύω이다. 이 단어는 ἐρμηνεύω에 접두어 δι를 첨가한 것으로 그 의미는 후자와 거의 동일하다.

루이스 벌코프에 의하면 플라톤(Platon)이 ‘HE HERMENEUTIKE’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한다.⁸⁾ 그리고 이 용어를 성경에 적용하여 “성경해석학”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17세기의 단하우어(J.

6) 버나드 램, 『성경해석학』 권혁봉 역(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74), pp. 29.

7) 신학교재 편찬위원회 편, 『간추린 성경 해석학』(서울 : 세종 문화사, 1975), pp. 15.

8) 루이스 벌코프, 『성경 해석학』 윤종호, 송종섭 역(서울 : 개혁주의 신행협회, 2004), pp. 9.

C. Danhaur)이었다고 한다.⁹⁾

B. 해석학(Hermeneutics)의 정의

해석학(hermeneutics)은 해석의 원리와 방법에 관한 학문이다. 해석학을 해석의 원리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과학이자 예술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다.¹⁰⁾ 그런데 성경 해석학은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상황에서 의미한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작업, 즉 성경 석의를 근거로 오늘의 상황에 맞는 해석을 규명하는 것이다. 성경 해석학은 ‘지금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 자체의 본래의 의미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 해석학은 성경 저자에 의도된 본래의 뜻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야 한다.¹¹⁾ 사실 성경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바로 파악하려면, 성경이 기록된 당시 상황과 지금 독자의 상황 사이에 존재하는 언어적, 역사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간격들을 메우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작업은 쉽지 아니하므로 성경 해석학의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다.

한편, 해석학은 우리로 하여금 저자나 화자가 전달하려고 의도한 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전략을 제공한다. 그런데 성경 해석학은 일반 해석학과 달리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에 의해 기록된 것임을 전제로 한다. 조지 래드(George Ladd)가 말한 대로 “성경은 역사 속에서 (사람의) 말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¹²⁾ 하나

9) 기독교 대백과사전 편찬위원회 편, 『기독교 대백과사전』 vol. 9, (서울: 기독교문사, 1984), pp. 111.

10) 루이스 벌코프, op., cit., pp. 9.

11) 고든 피/더글라스 스투어트, op. cit., pp. 31. 성경 해석학은 성경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라는 사실을 대전제로 한다. 이 전제를 기초로 모든 성경의 해석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님은 그의 뜻을 계시하시기 위해 오늘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택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을 택하셨다. 그러므로 성경 해석학은 본문의 본래 의미를 찾기 위한 성경적 원칙과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C. 해석학의 필요성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말씀으로 성경을 읽는 자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한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는 어떤 형태로든 그 나름의 해석을 하게 된다. 다만 그 해석이 지나치게 선별적인(selective) 것이 될 경우, 해석자가 본문의 저자 의도와 상관없는 해석을 하는 과오를 야기하게 된다. 즉 성경을 해석하면서 쉽게 범하는 실수는 “해석자가 자기 자신의 완전히 이질적인 관념으로 본문을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데 있다.”¹³⁾ 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석 방법을 위한 원리와 방법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된다. 한편, 성경이 쓰인 당시와의 시간적, 공간적 간격으로 인하여 이 간격을 넘어 성경의 본래 의도를 헤아릴 필요도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성경 해석은 종종 전문적인 지식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¹⁴⁾

12) Ibid., pp. 27.

13) 고든 피/스튜어트, op. cit., pp. 32.

14) Cf. 루이스 벌코프, op., cit. pp. 11. 루이스 벌코프(Louise Berkhof)는 그의 저서 『성경해석학』의 서두에서 성경 해석학 연구의 필요성을 4가지로 말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성적인 성경 연구만이 복음 전도자의 신학 확립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하여 준다. 둘째, 모든 설교는 모름지기 건전한 주석에 기초하여 행해져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현실이 갈망하는 것 중의 하나이다. 셋째, 복음 전도자가 예기치 않게 성경 구절의 해석을 부탁

성경 해석의 필요성은 성경적인 근거와 주석적인 근거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신약 성경의 언급이나 예수의 구약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일에 성경 해석학은 필요하다. 특히 성경 본문을 주석하는 일, 즉 본문의 역사적 배경, 문학적 배경, 신학적 배경 등을 고찰하여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있어서도 성경 해석의 원리와 방법이 필요하다.

1. 성경적인 근거

사도행전 8:26-35; 디모데후서 2:15; 베드로후서 3:16 등의 구절은 성경 해석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성경 해석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¹⁵⁾

1) 신약 성경의 근거

사도행전 8:26-35은 빌립과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 말은 권세 있는 내시에 관한 말씀이다. 그 내시가 성경을 펼쳐 이사야 53장을 읽었으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마침 그곳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온 빌립이 묻기를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묻는다. 내시는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답한다. 본문의 ‘지도한다(ὁδηγέω)’는 빌립이 행한 성경 해석의 역할을 말한다. 바로 성

받게 될 때 해석법의 올바른 지식은 현저한 도움을 준다. 넷째, 복음 전도자의 사명 중의 하나인 고등비평의 공격에 대항하여 진리를 보수하는데 있어서 해석학이 요긴하다.

15) 버나드 램, *op.*, *cit.*, pp. 20.

경 해석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디모데후서 2:15에는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다.’는 뜻은 ‘올바로 다루는 것’, 또는 ‘바로 자르는’ 것을 말한다. 즉 성경 해석을 바로 해야 한다는 뜻이다.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부정확하고 비정통적이며, 올바르지 않게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본문을 옳게 분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¹⁶⁾

베드로후서 3:16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본문은 베드로가 바울의 이신득의(以信得儀) 교리나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강조하는 종말론 등을 곡해하여 자기들의 해석에 유익하도록 성경을 해석한 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다.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은 성경 자체가 난해한 점을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읽는 사람들의 이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른 성경 해석자와 바른 성경 해석의 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신약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성경 해석학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다. 성경은 그 자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이 뿐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구약 인용에서 성경 해석의 필요성을 엿볼 수 있다.

16) 박찬수, 『성경 해석과 그 적용』, (석사학위논문,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1996), pp. 17.

2) 예수의 구약 사용

예수님의 구약 성경에 대한 태도와 예수님 자신이 성경 해석을 한 사실로 미루어 성경 해석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예수님의 구약 인용 중 주목할 만한 것은 구약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에게 적용한 점들이다.¹⁷⁾ 또한 성경이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데 그 계시를 잘 해석할 수 있는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 분 자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¹⁸⁾ 예수께서 이와 같이 구약을 자신에게 적용한 사실은 곧 구약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예수님께서 교훈 하실 때도 구약의 사건들을 사용하셨다. 이러할 때에도 실은 성경을 해석하신 것이다. 예를 들면 광야의 만나 사건(출 16장)을 가지시고 영생의 교리를 교훈(해석) 하셨다(요 6:31-51).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인간의 전통을 성경과 동일한 위치에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견책하시고 바른 성경 해석을 내리셨다(마 5:38-39).¹⁹⁾ 이와 같이 예수님은 구약을 친히 해석하시므로 성경 해석의 필요성을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올바른 성경 해석의 본을 보여 주시고 계신다.²⁰⁾

성경에는 상충되는 듯한 구절이나 매우 난해하고 아주 애매한 구절들, 혹은 신학적 해석을 요구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다. 이런 구절들을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해할 경우 본문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히 깨닫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루이스 벨코프는 인간의 이해 부족의 원인을

17) cf. 요 5:39; 눅 4:17-21; 24:44.

18) 요 1:18의 “독생하신 하나님”이란 말인 ἐξήγησάτο는 ‘하나님을 바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이란 뜻이다.

19) 장두만, 『성경의 무오성과 권위』 (서울: 요단출판사, 1991), pp. 40.

20) 박형용, 『성경 해석의 원리』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1), pp. 33.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결국 인간은 죄로 인해 성경을 자의적으로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²¹⁾ 따라서 성경 본문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경 해석을 위한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2. 주석적인 근거

성경 해석의 필요성은 성경이 기록된 시대와 성경을 읽는 현대 독자 사이의 시간적 공간적 간격에 생긴다.²²⁾ 동일한 문화, 동일한 시대, 동일한 지리적 위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피차의 이해가 용이하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당시 시대로부터 문화적, 역사적, 그리고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오늘의 해석자는 그 시간적 공간적 간격을 초월해 성경을 해석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1) 역사적 간격

버나드 램은 ‘지리를 성경의 무대라고 한다면 역사는 성경의 연극이다.’²³⁾라고 말하고 있다. 성경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게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역사적 내용을 아는 일이 필요하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시대와 현대 독자들 사이에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 이 시 역사적 간격으로 인하여 성경 본문의 뜻을 파악하는 일이 쉽지 않을 때도 종종 있다. 왜냐하면 어떤 기록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 그 기록

21) 루이스 벨코프, *op.*, *cit.*, pp. 10.

22) 버나드 램, *op.*, *cit.*, pp. 23.

23) *Ibid.*, pp. 25.

의 역사적 배경을 아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바울 서신과 사도행전을 해석하기 위해 사도 바울의 생애와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된다.

2) 문화적 간격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문화는 현대 우리들의 문화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문화의 간격으로 인해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초래되곤 한다. 그러므로 성경의 문화적 배경을 아는 것은 성경 본문을 석의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문화의 영향 하에서 실제 사건들을 보기 때문에 한 문화 속에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용이한 것이 아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혼인 풍습, 경제 체계, 군사제도, 농경법 등을 아는 것은 성경 본문의 의미를 아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성경에 언급된 지리에 대한 지리학적 지식을 참고로 하면 성경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언어적 간격

성경 해석은 성경 세계와 우리의 세계 사이에 놓여 있는 언어의 간격에 의해 도전을 받는다. 성경 저자들은 그 당시의 언어-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즉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접할 수 없는 언어로 성경을 기록했다. 이 간격을 잇는 법칙을 설정하는 일이 성경 해석학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²⁴⁾ 다양한 성경 세계들과 우리의 세계 사이에 놓여 있는 거리들 때문에, 이러한 성경 당시의 세계들과 이 당시의 저자

24) Ibid., pp. 25.

들이 성경을 기록한 바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객관적인 언어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4) 사상적 간격

성경 기록 당시의 삶에 대한 환경, 인생관과 우주관의 본질에 있어 오늘날의 견해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또한 이 기록된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해석자는 양자 간에 존재하는 간격을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사상 체계나 인생관, 세계관 등을 아는 일은 성경 본문의 뜻을 온전히 해석하는 일에 많은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5:21-48에서 예수는 율법의 해석자로 그려지는데 여기서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태도나 종교관을 아는 일은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에서 신약 성경은 성경 해석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예수의 구약 해석 인용을 통해 성경 해석의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성경 본문의 난해한 내용을 해석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성경 본문에 대하여 연구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사용해 기록한 것이기에 기록 당시의 언어, 문화, 역사, 사상 등을 아는 일은 성경 해석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 상황은 오늘 우리가 사는 상황들과 현격하게 차이가 남으로 그 본질상 성경 해석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해석자는 성경 해석에 있어 그 원리와 방법만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성경 해석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필요하다.

III. 칼빈의 성경 해석 원리와 방법

개혁주의 신학의 원조로 칼빈의 신학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지만, 성경 해석의 거장²⁵⁾으로서의 칼빈은 많이 고찰되지 못했다.²⁶⁾ 칼빈의 주석이 오늘날에도 학자들에 의하여 많이 애용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칼빈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했는지 탐구하는 과업은 매우 소중하다 여겨진다.

A. 칼빈의 해석 원리

1. 칼빈의 해석 원리에 있어서 전제들

1) 성경의 이중 저작성

칼빈에게 있어서는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본질 문제가 성경 해석에 우선한다. 칼빈은 성경을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권위를 바로 인정하고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의 본질을 전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칼빈은 성경의 이중 저작성을 주장한다. 성경은 그 저작성에 있어서 신적인 면과 인간적인 면

25) 위필드는 그의 저서 '칼빈과 어거스틴'에서 칼빈을 성경 해석이 거장으로 묘사한다. "칼빈은 타고난 해석가로서 본문을 해석할 때 그의 언어 지식의 소양과 훈련받은 기술에 명석한 지성, 비범한 통정, 청렴결백한 정직, 비범한 역사관 그리고 사상의 발전에 대한 뛰어난 통찰력을 첨가시켰는데, 이 모든 것은 그의 심오한 종교적인 이해력에 의하여 조명되었다. 따라서 그의 성경 해석은 완전히 새로운 경이적인 것으로서 새로운 해석방법을 도입했다. 그는 '참된 해석의 창시자'로서 성경 연구의 역사 안에 걸출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26) 안명준, 『칼빈의 성경 해석학』 (서울: 기독교문서 선교회, 1997), pp. 7.

이 있다는 것이다.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쓰인 하나님의 말씀²⁷⁾이면서도, 또한 인간 저자에 의해 쓰인 작품이다.

성경의 이중 저작성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다. 칼빈은 하나님의 비밀은 성령에 의한 은혜를 통해서 조명될 때만이 사람들에게 이해되어진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을 특별히 강조했다.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성령만이 말씀에 대한 가장 적합한 증거자가 될 수 있으며, 해석자가 될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확실한 내적 증거를 통해서만이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고 또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해석, 강론되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칼빈의 신념이다. 따라서 칼빈은 “성령이 조명이 없이 단순히 말씀만으로는 아무런 효력도 유익도 없다.”고 말한다.²⁸⁾ 성령은 말씀의 동반자로서 성경을 이해하는 과정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태양빛과 같다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것은 말씀이 어둡기 때문이 아니다. 그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침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이유로 칼빈은 해석자의 자질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했다. 칼빈에게 있어서 해석자는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자이며, 성경 해석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한다. 해석

27) 칼빈, 『기독교 강요』, 김종흠, 신복운, 이종성, 신철하 공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8), pp. 163.

28) 손석태, op., cit. pp. 43-44.

자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자여야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라야 된다고 생각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성경의 해석이나 설교는 생명력이 없다는 것이 그의 기본적인 이해이다.²⁹⁾ 따라서 해석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경건 생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

칼빈의 성경 해석에 있어서 전제되어야 할 또 다른 점은 성경의 통일성이다.³⁰⁾ 하나님 백성은 하나이며, 그의 백성들에게 주셔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도 하나이다. 옛 언약과 새 언약 아래서 계시에 대한 차이점은 미미한 것이다. 굳이 차이점을 말한다면 첫째로, 훈련 양식 구약에서보다 신약이 더 고상하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비유나 이미지나 신적 진리에 대한 그림자를 사용하신다면 신약에서는 진리 자체의 출현을 강조한다.³¹⁾ 칼빈의 모든 성경 해석의 원리는 신구약 통일성과 연속성이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한다.

2. 성경 저자의 의도

칼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석의 원리는 성경의 저자가 의도하는 의미를 찾는 것이다. 칼빈은 그의 첫 주석 로마서를 1539년에 완성하고 1540년에 출판하며 현사에서 해석자가 저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 해석자의 임무요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다.³²⁾ 이는 분명 영해에 집착하는

29) Ibid., pp. 45.

30) 함운길, 「개혁자들의 성경 해석 원리와 실제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2004), pp. 25.

31) 손석태, op., cit. pp. 45.

중세의 성경 해석에 대한 도전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항상 저자를 언급하고 저자가 성경의 이야기나 논지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밝힌다. 칼빈은 저자가 의도하는 바를 찾기 위하여 문법적 석의나 어원학적 분석이나 문맥의 흐름이나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 성경들을 비교하고 검토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성경 저자가 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말하게 하는 것이 해석자의 첫째 되는 임무이다”고 말한다.³³⁾ 칼빈은 저자가 의도하는 의미를 찾는데 있어서 두 가지 면을 고려했다.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과 사람의 이중적인 면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도 하나님, 곧 성령이 의도하는 의미와 인간 저자가 의도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고려한 것이다. 이처럼 칼빈은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인간 저자의 의도를 염두에 두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도 역시 찾으려고 했다. 그러나 칼빈에게 있어서 성령이 의도하는 바와 인간 저자가 의도하는 바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성령이 의도하는 의미가 바로 인간 저자가 의도하는 바이었다.

3. 성경이 성경을 해석

칼빈의 성경 해석 두 번째 원리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9항에서 “성경 해석을 위한 무오한 법칙은 성경 자체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구절의 참되고 완전한 의미에 대하여 의문이 생긴 때에는, 보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다른 구절을 통

32) Ibid., pp. 46.

33) Ibid.

해서 연구하고 알아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³⁴⁾ 이것은 물론 문자적인 해석의 중요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언이나, 비유, 혹은 은유, 모형이나 신행 등의 해석에 있어서 확고한 그의 해석 철학을 표명하는 말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성경은 역사적인 배경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성경을 바로 이해 할 수 없고, 불분명 하거나 어려운 성경 구절은 명료하고 쉬운 성경 구절에 비추어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령이 신약 약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에 성경은 내적인 통일성이나 일관성이 있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원리가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칼빈은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 해석의 가장 신뢰할 만한 길잡이라고 말한다. 이 원리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고, 너무나 상직적인 내용이며, 너무나 평범한 듯한 쉬운 원리이다. 그러나 이 원리를 가볍게 여기고 이 원리를 무시하여 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 뜻, 즉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를 잃게 되는 불행을 맞게 될 것이다.³⁵⁾

4. 기독교적 해석

세 번째는 기독교적 해석이다. 칼빈은 일찍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을 목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누구든지 이로부터 벗어나서 일생을 노력하고 연구한다 해도 그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CR 47: 125). 그리스도 안에는 온갖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골 2:3). 성경의 해석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여

34) G. I. 윌리엄슨,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나용화 역,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2006), pp. 33.

35) 함윤길, op. cit., pp. 26.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찾으려 해야 한다. 이러한 원리는 특별히 구약의 해석에서 많이 적용되며, 구약의 모형론적 해석은 종래의 영해와는 구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칼빈은 시편에서 다윗과 그의 왕국을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의 그림자요 모형이라 말하고, 심지어 다윗의 고난과 영광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하와 높아지심 사이에 병행점을 찾으려 했다. 이처럼 칼빈은 일관성 있게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찾으려 노력했던 해석자였다.

5. 구속사적 해석

넷째는, 구속사적 해석이다. 칼빈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 본문의 흐름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그의 맥락에 대한 의식은 비단 성경의 문법적인, 혹은 문학적인 면에만 국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맥락에서 이해하려 했다. 어떤 사건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일간을 구원하시려는 역사 속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며 그 역할이 무엇인가를 예리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파헤치려고 한 것이다. 현재 우리들이 쓰는 말로 구속사적인 면에서 성경을 해석한 것이다. 칼빈이 성경을 구속사적인 면에서 조명하고 해석하려는 점은 칼빈에게 있어서 너무나 집요하고 일관성 있는 점이다.³⁶⁾ 칼빈이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그의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 그리고 신구약 속에서 흐르는 계약 사상을 전제로 한 것임에 틀림없다. 칼빈에게 있어서 계약 사상은 그의 구속사적 해석의 기초가 되어 있다.

36) 손석태, *op. cit.*, pp. 49.

6. 영해(Allegorical Interpretation)의 배척

칼빈은 인문주의자로서 교육을 받았으며 인문주의 해석 방법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또한 교부들 특히 어거스틴의 저서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며, 성경 해석의 많은 부분에서 어거스틴의 그것과 유사하다. 따라서 칼빈이 중세의 성경 해석 방법과 그 연결 고리를 완전히 끊고 문자적인 해석을 주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는 여전히 곳곳에 영해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해를 배척했다. 칼빈은 그의 주석 곳곳에서 알레고리를 배척하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신약의 실재는 구약의 세속적인 형태나 그 그림자를 나타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성취되지 않은 예언은 영적 해석을 찾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하기도 한다.³⁷⁾

B. 칼빈의 해석 방법

칼빈의 해석학 방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로 칼빈은 성경의 올바른 해석을 위하여 당시 종교 개혁자들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성경 해석 방법인 문학적 접근(문법적-역사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둘째로 칼빈은 로마서 서문에서 간결한 방법과 용이한 방법을 자기의 고유한 성경 해석학 방법으로 보여주고 있다. 칼빈은 자기가 사용하는 이 방법의 우월성을 확신하였고, 이 방법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성경 본문의 의미를 쉽게 이해시키고자 했다.³⁸⁾

37) 손석태, *op. cit.*, pp. 52.

38) 안명준, *op. cit.*, pp. 21-22.

간결한 방법이란 길고 장황하고 거대한 해석을 피하고 가능한 짧고 간략한 방법을 의미하며, 용이한 방법이란 해석의 단순성을 찾으려는 시도로서 해석시에 애매한 점을 제거시켜 의미를 알기 쉽게 독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이다. 칼빈은 단순성을 찾고 독자들이 장황한 주석으로 인한 지루함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이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성경 저자의 의도를 독자들로 하여금 간결하고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 목적은 로마서의 헌사뿐만 아니라 시편 주석의 서문에서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³⁹⁾ 이와 같은 칼빈의 해석 방법의 특징을 많은 학자들은 “간단 명료성”이라 부른다.

1. 문학적 접근

1) 상황적 접근

칼빈은 저자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저자가 처한 상황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본문의 역사적, 지리적, 제도적 상황을 주석에서 기록하고 있다. 그리하여 칼빈은 본문 주석 이전에 꼭 본문의 내용을 간추려서 기록하고 그의 배경을 쓰고 있다. 물론 이러한 작업은 에라스무스의 영향이었을 것이다. 일찍이 에라스무스는 그의 독자들에게 역사적, 지리적 환경, 관습, 제도, 그리고 마땅히 고려해야 할 다른 요인들을 주의 깊게 연구하도록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일 이러한 작업이 끝나면, 독자는 그가 읽은 것으로부터 찬란하고 놀라운 빛과 생명이 주어질 것이나 대개의 경우 이러한 지식이 부족하면, 심지어 언어 자체의 지식이 결여될 때에는 그가 읽은 것이 파분하고 죽은 것이 될 것이다.”⁴⁰⁾ 본문의 배

39) Ibid. pp. 64.

경과 상황을 아는 것은 본문에 의도된 저자의 뜻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라고 칼빈은 생각한 것이다.

2) 어원적 접근

일단 본문의 배경과 상황이 확정되면 칼빈은 다음으로 저자의 의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본문의 참된 의미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⁴¹⁾ 여기서 참 의미라는 말은 원래의 의미와 같은 말이다. 이를 위해서는 성경 원어에 대한 지식이 요구된다. 칼빈은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참 의미를 알기 위하여는 유대 계통의 학자들의 주석을 참조하기도 했다. 칼빈은 특히 중요한 성경 구절을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거의 암송하고 있었다고 한다. 칼빈은 어느 성구에 대해서는 칼빈 당대에 사용하고 있던 보통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 어휘의 어원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졌다.

3) 문맥적 접근

칼빈은 저자의 의도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문맥의 흐름을 주의 깊게 살피라고 말한다. 그는 또한 많은 주석의 난제는 해석자가 그 본문의 문맥을 주의 깊게 살피면 설명이 되고 정확하게 해결이 된다고 말한다. 그는 성경을 번역 또는 해석하는데 있어서 그 어휘가 발견되는 문맥을 항상 주의 깊게 고려한 사람이다. 그에게 다양한 의미를 가진 어떤 어휘를 번역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의미를 취사 선택하는 기준은 항상 문맥이었다.⁴²⁾

40) 손석태, *op. cit.*, pp. 55.

41) *Ibid.*, pp. 55.

칼빈은 히브리어의 어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강조했다지만 어원을 확일적으로 본문의 번역이나 해석에 적용하지 않았다. 그 어원의 의미가 문맥에 맞지 않을 때는 그것을 채택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어원적 의미보다 문맥이 어휘의 의미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우선적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문맥의 중요성을 단지 어떤 어휘의 문맥 속에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어떤 문장이나 사건의 문학적 맥락이나 역사적 맥락에서도 찾을 수 있다. 칼빈이 문맥을 중요시한 이유는 단지 성경 해석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성경의 어떤 기술이나 명령은 그 전후 문맥을 무시할 때, 대개의 경우에 그 말씀은 저자가 의도하는 방향에서 벗어나고 건전한 적용을 할 수 없게 하기 때문이었다. 칼빈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면에서 그 말씀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문맥을 고려하고, 문맥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했던 사람이다.

4) 모형론적 해석

칼빈이 영해를 배척한 이유는 그것이 본문의 문자적인 의미나 역사적인 의미를 무시하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성경에 뿌리를 두고, 교부들이 사용했던 모형론을 자주 사용하였다.⁴³⁾

칼빈이 특히 구약을 모형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던 기초는 신구약의 통일성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한 하나님이 구약의 언약 백성들의 역사 속에 그의 발자취를 남겼다는 전제이다. 그래서 칼빈에서 있어서 모형은 일종의 예언이며, 모형론은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라는 관계

42) Ibid., pp. 57.

43) Ibid., pp. 58.

속에서 성립한다고 했다. 이러한 견해 속에는 칼빈은 구약 성경의 의식법은 오실 메시야의 그림자로 간주했다. 그래서 안식일이나 유월절 등이 모두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출 12:5).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도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모형이며(출 28:1 이하), 다윗과 그의 후손들도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이다.

그럼 칼빈은 그의 모형론적인 해석이 옳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했으며 또한 정당화 했는가? 칼빈은 그의 모형론적인 해석의 정당성을 신약 성경으로부터 찾는다. 칼빈이 모형론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바로 신약 성경이 저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칼빈은 시편 2, 22, 89, 110편, 그리고 히브리서 주석에서 그의 모형론적인 성경 해석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⁴⁴⁾

2. 간결한 방법과 용이한 방법(간단 명료성)

칼빈은 저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 성경 해석자의 임무요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간단 명료하게 밝혀서 독자들로 하여금 저자가 의도하는 바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견해가 그의 주석을 통해 동일하게 견지되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다. 리차드 갬블(Richard Gambli)에 의하면 칼빈의 이러한 간단 명료성은 칼빈의 가장 두드러지는 해석 방법이라고 말한다. 그리하여 아무리 우둔한 학생이라도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썼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에 있어서 간결하다. 해석의 다양성이 없다. 그 의미에 있어서 간결하고 분명하다. 따라서 다양성을 가진 어휘의 문체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물론 칼빈의 이러한 방법은 많은 목회자나

44) Ibid., pp. 60.

신학도들이 성경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회자적인 배려에서 나왔으리라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⁴⁵⁾

1) 간결한 방법

간결한 방법은 성경 본문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보여 주며 본문을 가능한 간략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칼빈은 성경을 해석할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리들을 가지고 간결한 방법론을 사용했다.⁴⁶⁾

① 반 상황성

간결한 방법의 첫 번째 원리는 성경의 본문을 해석할 때 단어나 혹은 문장의 사용에서 보통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또 문장을 쓸 때 장황하게 하지 않는 것이다. 칼빈이 그렇게 한 이유는 그의 독자들이 말 많은 주석으로 부담 갖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 안에서 그는 성경 해석을 장황하게 했던 에라스무스, 고대 신학자들, 그리고 부처를 비판하기도 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을 주석하는 자나 설교를 하는 자가 가능한 한 장황한 어법을 버리고 간결한 방법으로 독자와 청중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음을 배울 수 있다.

② 축소성

이 원리는 해석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축소시키기 위해 성경 해석 시에 수사학자들이 썼던 몇 가지 패턴을 통하여 본문의 의미를 독자들에게 전

45) Ibid., pp. 54.

46) 안명준, op. cit., pp. 65.

달할 때 그 해석의 설명과 내용을 간결하게 하는 것이다. 칼빈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패턴을 가지고 간결한 방법의 축소성 원리를 사용한다.⁴⁷⁾

첫째, 칼빈은 의도적으로 가능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을 소개하기를 피한다. 그는 직접적으로 독자들에게 자기 의견을 제시한다.

둘째, 불필요한 논쟁, 토론 그리고 논의를 피한다. 논쟁을 피하는 것이 본문의 애매한 의미를 제거시켜 주는 한 방법이라고 칼빈은 제시한다. 논쟁을 접어두고 본문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피력하는 것이 간결한 방법의 축소성 원리이다.

셋째, 칼빈은 별로 중요치 않은 문제나 단어를 가지고 많은 시간을 소비해 가면서 주석을 방대하게 하지 않았고, 독자들에게 지루하게 설명하지 않았으며, 간략하게 해석한다.

넷째, 다른 곳에서 해석된 내용이 본문과 동일하게 해석될 경우에는 반복되는 것을 피하는 방법이다. 즉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해석된 주석들을 독자들 스스로 참고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③ 보존성

이 원리는 칼빈이 성경을 해석할 때 원문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오히려 원문 그대로 보존된 상태에서 설명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원문의 단어 그 자체를 근거로 해석하지 않고, 오히려 수정되고 변형된 어법을 갖고 해석을 할 경우에 원문의 의미가 간결하기보다는 애매 모호하게 되기 때문에 원문을 수정하여 해석하는 방법을 반대했다. 칼빈은 로마서 7:15의 '내가 알지 못하노라'라는 구절을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므로 에라스무스의 '시인한다'라는 표현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그 표현은 모호할 수 있어서, 나는 안다는 표현으로(원문 그

47) Ibid., pp. 68.

대로) 보존하기를 택한다.” 여기서 칼빈은 보존성의 원리를 사용함으로써 원문에 충실한 해석자임을 보여준다.⁴⁸⁾

④ 관계성

관계성이란 성경을 해석할 때 본문과 관련된 문체에만 제한을 두고, 본문과 무관한 주제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해석의 방향을 단절시키며, 그런 주제로 인해 자신의 해석이 본문의 중심에서 이탈하지 않는 방법이다. 칼빈의 해석이 간단명료하고 논리적인 것은 그가 늘 본문의 중심에서 이탈하지 않았고, 그 결과 본문의 주제를 떠나서 방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칼빈은 다른 해석자들이 본문의 중심에서 이탈한 점을 자주 지적한다. 칼빈은 갈라디아서 1:10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에서 다른 주석가들이 본문과의 관계성을 보여주지 못한 점을 지적한다.⁴⁹⁾ 이 구절은 헬라어의 구문이 애매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석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제 사람을 권고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입니까?’라고 해석하며,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님’과 ‘사람’을 ‘신적 표준’과 ‘인간의 표준’이란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이 해석이 원문 말씀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았다면 문맥상으로는 매우 어울렸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을 따르고 싶은데, 다시 말하면 헬라어에서는 ‘...에 의하여’에 해당하는 전치사 카타(κατα)를 보충하여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의 설교의 주제나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의 의도, 곧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에 관해서이다.”⁵⁰⁾

48) Ibid., pp. 75-77.

49) Ibid., pp. 79-80.

50) 존 칼빈, 『성경주석 19』, 존칼빈 성경주석출판위원회 역, (서울: 성서원, 1999), pp. 8-511.

2) 용이한 방법론

용이한 방법론이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애매모호함을 피하고 단순성 혹은 쉽게 이해되는 것을 찾으려는 것이다. 칼빈이 알레고리 해석을 거절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알레고리 해석이 한 본문에서 여러 가지의 의미를 주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칼빈은 언제나 무조건 알레고리 방법을 반대하지는 않았다. 칼빈은 알레고리가 성경이 세운 법칙의 한계를 넘어가지 않는 범위에서는 그 사용을 허용했다.⁵¹⁾

① 반 강요성

칼빈이 제일 싫어하는 해석 가운데 하나는 성경의 의미를 강요하거나 혹은 왜곡시키는 것이다. 칼빈이 본문을 왜곡하고 억지 해석을 반대한 이유는 독자들로 하여금 저자의 순수한 문자적 의미를 쉽고 단순하게 이해하게 하지 않기 위함이다. 정당한 이유가 없이 문자적 해석을 무시할 때 오리젠이 썼던 알레고리 해석이 되고, 본문에 나타난 참된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리적인 문제의 깊은 논쟁에 끼어들 때 본문의 순수한 의미를 잘못 적용한 교부들처럼 되어, 결국은 억지 해석이라는 비난의 여지를 갖게 된다. 칼빈은 이단에 대한 강한 비판자였지만, 그의 앞선 교부들이 조급하게 생각한 나머지 이단들의 사악한 교리를 공박할 때 성경을 왜곡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의 해석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⁵²⁾

② 반 모호성

51) 안명준, *op. cit.*, pp. 84.

52) *Ibid.*, pp. 90-91.

이 원리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장애가 되는 애매모호함을 제거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단순하고 명료한 해석을 주는 것이다. 수사학자들은 말과 문장이 애매한 경우 청중과 독자들이 이해하는데 장벽이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항상 애매모호한 표현은 금기 사항이 되었다. 칼빈 역시 이 원리를 성경 해석에 적용하여 수사학적인 방법을 주석에서 많이 보여준다.

③ 반 억측성

이 원리는 주관적인 상상력이나 부정확한 추측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해석은 건전한 해석방법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문의 참된 의미를 밝혀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칼빈은 에라스무스가 정확한 해석 방법론을 무시하고 경솔하게 추측하여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비판한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5:32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의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에라스무스의 억측성을 지적한다. “에라스무스가 실수하여 억측한 해석은 맹수와 싸운 사람은 맹수에게 (잡혀 먹도록) 던져진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맹수와 싸우도록 유죄 선고를 받은 자들이다.” 칼빈은 에라스무스가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한 이유가 바울이 말한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이란 표현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바울 당시 에베소 지방의 사회적 풍습을 잘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성경 해석자가 잠시라도 정확한 방법론에 근거하지 않고 본문을 다룬다면 자기의 사상의 날개를 타고 성경의 저자가 의도한 것과 전혀 동떨어진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될 것이다. 칼빈은 해석자가 이런 잘못된 상상

력 때문에 참된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⁵³⁾

④ 단순성

용이한 방법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단순성의 원리이다. 이 원리는 문자 그대로 성경을 해석할 때 단순하게 하는 것이다. 이 단순성의 원리는 애매모호성, 왜곡성, 억측성에 반작용한다. 그러므로 이런 요소들 단순성의 원리를 밝히는데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단순성 원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독자들이 성경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는 것에 있다. 칼빈의 독자에 대한 관심은 아주 세밀하여서 그는 항상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해석하였다.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애매한 의미를 제거시키고 저자의 의미 곧 성경의 참된 의미가 왜곡되는 것에 항상 주의를 요했다. 이런 것들이 그의 해석을 정확하게 하도록 도움을 주었으며, 독자들을 위한 그의 집념이 그의 해석을 실제적인 주석으로 만들었다.

⑤ 적절성 혹은 자연성

칼빈은 성경의 해석자는 모호한 방법은 피하고, 해석자의 주관에 따라 본문을 왜곡시키지 않고, 저자의 의도와 문맥에 적절하게 어울리고, 저자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설명해야 할 것을 말한다. 바로 이것이 적절성 혹은 자연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⑥ 자연성

이 원리는 해석자가 자기의 주관적인 모든 것을 동원하여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닦치는 대로 성경을 다루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

53) Ibid., pp. 93-95.

것은 규범과 방법이 없는 그런 무한한 자유성이 아니다. 인간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란 무한정 인간이 아무것이나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듯이 성경 해석자도 마찬가지다. 칼빈에게 있어서 자유성의 원리란 본문의 해석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을 경우에 해석자가 자기의 주장을 독자들에게 억지로 강요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 좋아하는 해석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자유를 의미한다. 칼빈은 확신이 들지 않는 해석에 대해서 독자들이 자신의 견해에 동의하도록 강요하지 않았고 적절한 해석을 선택하도록 하여 독자의 판단을 존중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자가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을 보여준다.

칼빈은 성령의 의도, 저자의 의도를 바르게 해석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에게 있어서 저자의 의도란 본문의 참된 의미인데, 본문을 왜곡하지 않고 건전한 성경 해석 방법론에 근거하는 단순하고 자연스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는 성경을 해석할 때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주장이나 어떤 교리적인 편견을 가지고 본문을 다루지 않았다. 객관적인 성경적 원리와 방법에 입각하여 해석하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칼빈은 성경의 해석이 교회와 독자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 이것이 그가 성경을 해석할 때 독자들을 돕기 위하여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본문을 해석한 중요한 동기였다.⁵⁴⁾

54) Ibid., pp. 110.

IV. 성경 해석 방법론과 그 실제(고전 1:18-25)

A. 성경 해석 방법론

해석의 원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성경 본문의 중요성을 재삼 인정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해석의 원리가 성경 본문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 본문 없는 성경 해석 원리는 있을 수 없고, 성경 본문을 떠나서 형성된 성경 해석 원리는 성경을 해석하는데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성경의 뜻을 왜곡시키는 역할을 한다.⁵⁵⁾

칼빈의 성경해석학 원리와 방법을 근거로 성경 해석 방법론을 고찰할 때, 성경의 본문의 뜻을 제대로 해석하는데 적어도 세 가지 측면에서 본문을 고찰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본문의 역사적 접근, 문법적 접근, 신학적 접근이 바로 그것이다. 이 장에서 이 점에 대하여 살펴봄으로 성경 해석 방법의 실제 원리를 고찰하고자 한다.

1. 역사적 접근(Historical Approach)

‘역사적’이란 말은 역사적인 형편 가운데서 저자가 사용한 용어의 뜻을 찾아내는 것이다. 즉 저자의 시대와 형편을 연구하여 저자가 사용한 말의 참 뜻을 찾아내는 것이다. 사무엘 데이빗슨(Samuel Davidson)은 “성경 기록자들이 사용한 언어의 특별한 문법적 법칙들은 그 당시의 특별한 형편에 의해 나타난 원리들이었고, 역사적인 연구만이 우리들로 하여금

55) 박형용, “문법적-역사적 해석방법의 우월성”, 『성경과 신학』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Vol 2, 1944), pp. 32.

그 형편을 알 수 있게 한다.”⁵⁶⁾ 그의 주장에 따르면, “성경 저자들을 위해 새로운 언어가 창조된 것이 아니었다. 성경 저자들이 오히려 그 나라와 시대의 언어를 사용하였다. 만약 그렇지 않았던들 그들의 기록은 이해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언어가 사용된 그 당시의 용법을 취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기록하는 중 내적, 외적 관계에 의해 자연스럽게 적용하여 사용한 것이다.”⁵⁷⁾라고 말했다. 사실 데이빗슨의 주장은 성경 해석에 있어 역사적 접근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역사적 접근은 다음 사실을 근거로 시작된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인 방법으로 주어진 때문에 역사에 비추어서만 이해될 수가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하고 있는 모든 것이 역사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초자연적 계시로서 역사의 한계를 초월한 요소들도 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이 상당한 범위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⁵⁸⁾ 둘째,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쓰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무시할 수 없다.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자가 성경을 쓸 때의 정신을 포착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그 역사적 배경에 비추어 볼 때 저자의 글의 내용을 올바르게 터득할 수 있다. 셋째, 장소, 시대, 환경 등은 그 가운데서 기록된 글에 영향을 미친다.⁵⁹⁾ 성경은 특수한 시대 환경을 배경으로 하여 기록되었다. 따라서 그 특수한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 해석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56) 버나드 램, *op. cit.*, pp. 161.

57) *Ibid.*

58) 박찬수, *op. cit.*, pp. 152.

59) 박형용, “문법적-역사적 해석 방법의 우월성”, pp. 38.

역사적 접근을 쉘러(Semler)의 조화론(accommodation theory)과 혼동하거나 오늘날 범람한 역사적-비평적 해석 방법들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역사적-비평적 해석 방법론은 역사에 적용되는 진화론의 철학에 기초한 것이다.⁶⁰⁾ 바르트(Barth)도 그의 『로마서 주석』 2판 서문에서 역사적-비평적 방법을 통한 연구는 주석을 하는데 있어서 서론적인 역할 밖에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말하기를 실제 주석은 역사적-비평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주석은 본문의 실제 뜻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했다.⁶¹⁾

역사적-비평적 해석 방법은 성경 기록들을 순전한 인간의 산물로서 생각하고 그 기록들이 역사적인 가치가 있느냐 하는데 더 큰 관심을 기울인다. 그러나 역사적 접근은 성경의 각 책을 연구하는데 그 책이 쓰인 역사적 형편에 비추어 연구하므로 본문의 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출발하게 된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무오하게 기록된 성경이지만 성경 기록에 사용된 언어들은 역사적인 언어들이다. 하나님이 그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어떤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시지 않았다. 따라서 성경의 언어들 역시 역사적, 문화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역사적 문화적 영향을 받은 언어를 하나님이 그대로 사용하시되 저자들에게 영감을 불어 넣어 오류 없이 기록하도록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이 기록될 당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영향을 받은 언어의 뜻을 알 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일은 역사적 연구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고로 역사적 접근은 성경 해석에 있어 중요한 것이다.⁶²⁾

60) 버나드 램, *op. cit.*, pp. 161.

61) 박형용, “문법적-역사적 해석 방법의 우월성”, pp. 38.

62) *Ibid.*, pp. 39.

그런데 해석자가 성경 이해를 위해 역사적 연구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해석자가 현재 살고 있는 형편을 떠나 성경이 기록된 과거의 형편 속에 자신을 완전히 담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인간이 역사를 떠나서 역사와 무관하게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석자가 자신이 과거의 인물처럼 행동하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둘째, 성경 저자들을 존경해야 하지만 성경 본문을 곡해할 만큼 그들을 신성시할 필요는 없다.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된 무오한 기록이지만 성경 저자들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피조물이다. 때로 우리는 위대한 성경 저자들의 편에 서서 성경 본문을 해석하려고 한다. 테리(Terry)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경 저자들의 거룩함을 과도하게 강조하면 참다운 역사적 해석을 방해하기 마련이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부르시고 영감 시킨 것은 그들의 자연적인 능력까지 무효로 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성경 해석자는 성경 저자들의 신적인 사명의 영광스러움에 눈이 부셔 그들의 역사적 사건을 이해하는데 눈이 어두워져서는 안 된다.”⁶³⁾ 이처럼 모세, 이사야, 다니엘, 바울 등 세상을 그들의 손 안에 넣고 생활한 위대한 성경 인물들이 기록한 성경을 해석할 때에도 그들의 거룩성으로 눈이 부셔 본문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다.

역사적 해석은 결국 성경이 기록될 때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하는 것과 직결된다. 성경은 그것이 기록될 당시 역사와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도 그 역사와 무관하게 해석할 수 없다.⁶⁴⁾ 성경 해석에 있어 바른 해석은 성경이 기록된 특수한 역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63) *Ibid.*, pp. 40.

64) *Ibid.*, pp. 40-41.

2. 문법적 접근(Grammatical Approach)

성경을 기록한 언어의 문법적 법칙을 규명하여 저자가 전하려고 하는 정확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은 성경 해석에 있어 꼭 필요한 일 중의 하나이다. ‘문법적’이란 말은 헬라어에서 문자의 뜻을 찾는 문자적(literal)이라는 말과 본질적으로 같다. 성경 해석에서 문법적 접근은 성경에 사용된 단어와 구절이 쓰일 때 무슨 뜻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찾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어원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사실 ‘문법적’이라는 말과 ‘역사적’이라는 말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언어란 역사적인 형편과 환경에 의해 그 뜻을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바른 성경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특성을 이해할 때 가능하다. 성경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기록될 당시의 언어에 대한 ‘문법적’ 체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그렇게 때문에 해석자는 성경이 기록된 언어의 문법 체계를 배우고 그 체계에 따라 해석을 해야 한다. 여기서 꼭 유의해야 할 점은 성경을 기록된 당시의 문법 체계에 따라 원문을 해석할 때 다소 원문이 그 문법 규칙에 어긋나는 것(문법적 오류)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성급히 원문의 문법적 오류를 지적하기보다 오히려 원저자의 뜻이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가를 찾으려고 힘써야 할 것이다.⁶⁵⁾

문법적 접근에서 중요한 원칙은 일반적으로 단어나 문장이 한 문맥에서 한 뜻만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간은 수수께끼를 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가장 분명한 말로 의사를 표현한다. 성경 저자들은 꼭 필요한 말을 필요한 장소에 사용했을 것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문법적 접근

65) 박찬수, *op. cit.*, pp. 147.

은 항상 그 언어의 법칙과 원리를 연구하고 적용하는 것이다. 단어의 뜻을 연구하며, 그리고 그 단어가 다른 단어와 어떤 관계에 있으며, 격, 법, 시상이 문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사상의 발전 등을 연구하여 그 언어가 그 당시에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문법적 접근의 목적이다. 그러므로 문법적 접근은 문맥의 흐름을 중요하게 간주하는데 그 이유는 용어들의 뜻이 문맥 안에서 이해될 때 올바르게 이해되며 문장의 요점과 강조점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역할은 문맥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법적 접근은 단어의 뜻을 어원적으로 연구하여 그 단어가 성경에 쓰였을 때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 단어가 문맥 내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연구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기계로 사용하여 기록하시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성품, 배경, 교육정도 등을 무시하지 않고 사용하시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오류 없이 기록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기록된 성경 본문 속에는 저자들 자신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은 특히 성경 본문의 용어 사용이나 문체에 잘 드러난다. 성경 저자들이 사용한 용어나 문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우리는 저자의 본래 의도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이처럼 저자의 사상이 그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전달되어졌기 때문에 저자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자가 사용한 언어의 문법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문법적 해석을 위해서 어원학(Etymology)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어원학을 잘못 적용하면 오히려 성경 본문을 곡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어원학은 단어의 기원과 그 형태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즉 어떤 단어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다. 흔히 어원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성경 본문에 적용하여 성

경을 해석하는 실례가 많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습관은 본문을 곡해하는 위험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 본문에 나타난 단어의 뜻이 반드시 어원학적인 연구를 통해 얻어진 뜻과 같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임스 바르(James Barr)는 이와 같은 위험을 지적하면서 어원학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단어의 뜻을 찾아내는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면, 영어의 ‘prestige’는 라틴어 ‘praestigia’에서 왔는데 ‘praestigia’는 ‘속인다’(deception)는 뜻이다. 오늘날 영어의 prestige(명성)와 ‘praestigia’⁶⁶⁾의 기원과는 전혀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⁶⁷⁾ 이와 같은 예는 어원학의 연구만을 통해 단어의 뜻을 찾아낸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인 것임을 확인해 준다. 어원학이 중요한 것은 어원학의 연구 과정을 가지고 그 단어의 현재 뜻을 찾아내는데 있지 않고 오히려 그 단어의 기원을 알며 또한 그 단어가 역사적으로 어떤 뜻으로 변형되어 사용되었는지를 찾아내는데 있다. 즉 어원학은 단어의 기원을 연구하고 그 의미의 변천 역사를 연구하여 단어의 뜻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의 의미에 도달했는가 알려주는데 큰 기여를 한다.

해석자는 용어가 사용되어진 문맥을 잘 연구하여 용어의 뜻을 문맥 가운데서 찾아야 한다. 문법적 접근은 어원학의 연구 결과를 본문에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요 본문의 문법에 사용된 용어의 뜻을 어원학의 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문맥 속에서 찾아내는 것이다.⁶⁸⁾

3. 신학적 접근(Theological Approach)

66) 라틴어 praestigia의 뜻이 아직 전달되고 있는 영어의 단어는 prestidigitation(요술)이나 prestidigitator(요술쟁이) 등이라 할 수 있다.

67) Ibid., pp. 36-37.

68) Ibid., pp. 37.

지금까지 언급한 문법적, 역사적 접근과 더불어 성경 해석에 있어서 신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신학적 접근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 자신이 성경의 해석자가 된다는 근거 위에 설립된 것이다. 성경이 한 책으로 한 저자를 가졌다면 그 내용이 서로 상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 통일성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신구약 66권의 각 책이 서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⁶⁹⁾ 문법적, 역사적 접근은 일반적으로 그 강조점이 성경 각 책이나 짧은 구절에 있지만 신학적 접근은 성경 전체를 일관하여 서로 상충되지 않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해석자는 성경의 각 책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성경 전체의 사상에 비추어 파악하여야 한다. 이는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 정경(성경 66권)에 최고의 권위를 부여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어떤 성경 구절을 해석할 때 정경 이외의 자료 보다는 정경 내에서 자료를 최우선적으로 찾아야 하는 것이다.⁷⁰⁾

신학적 접근은 특히 문법적, 역사적 접근이 충분하게 그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구절을 다룰 때 도움을 준다. 성경 66권 속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학적 장르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성경에는 문자적인 의미 이상의 뜻을 내포한 구절이 많다. 신비적이거나 상징적인 뜻을 가진 구절이나 표상적인 뜻을 가진 구절들은 역사적, 문법적 접근만으로는 깊은 뜻을 찾아내기 어렵다. 또한 예언이나 시도 역사적, 문법적 접근만으로는 충분히 그 뜻을 찾아내기 힘들다. 이런 경우 신학적 접근은 성경의 총괄적인 전망에서 특정한 구절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신학적 해석 방법은 성경 전체의 조명으로 문법적 - 역사적 해석법을 도와 성경 해석을 올바르게 하도록 해석자를 인도하는 것이다.⁷¹⁾

69) 박형용, “문법적-역사적 해석 방법의 우월성”, *op. cit.*, pp. 41.

70) 박찬수, *op. cit.*, pp. 156.

B. 해석의 실제(고린도전서 1:18-25)

18.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9. 기록된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20.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번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21.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2.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가 되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5.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1. 역사적 접근

바울이 제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사역하는 과정은 사도행전 18:1-18에 소상히 기록되어 있다.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에 도착하여 빌립보와 테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운 후, 배뢰아와 아테네를 거쳐 고린도에 도착했다(행 16:11-18:1). 그리고 그는 이 도시에서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이라 할 수 있는 약 18개월 동안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행 18:9-11).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보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바울의 신적 확신이 분명했기 때문이

71) 박형용, “문법적-역사적 해석 방법의 우월성”, op. cit., pp. 41.

라고 할 수 있다. 사도행전 18:9-10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고 서술하고 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뜻밖에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유대-그리스도인 부부를 복음의 동역자로 만났다.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 체류하던 중 49년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는 클라우디오(Claudius) 황제의 칙령에 의해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주한 상태였다(행 18:2). 이들은 천막을 만드는 동일한 직업을 통해 더욱 쉽게 동역할 수 있었을 것이며, 바울은 이들 부부의 집에 묵으며 생활 할 수 있었다(행 18:2-3). 곧 복음 사역의 동역자 관계로 아름답게 결속돼 갔다(행 1:18, 26, 고전 16:19, 롬 16:3-5).⁷²⁾

이런 상황 가운데 빌립보 성도들로부터 후원금을 갖고 마게도냐에서 내려 온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체류하던 바울과 합류하게 되었다(행 18:5; 빌 4:15; 고후 11:9 참조). 이들의 합류는 바울의 고린도 교회 사역에 커다란 힘이 되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의 사역하던 중 아가야 지방의 새 총독으로 부임한 갈리오(Gallio: 51년 7월 - 52년 6월의 재임 기간) 앞으로 고소를 당했다. 그러나 바울은 무죄로 판결을 받아 사역에 매진하였다(행 18:12-17). 따라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에 의해 설립된 교회로 소수의 유대인(행 18:8)과 다수의 이방인들(고전 12:2)로 구성된 교회이었음을 알 수 있다. 대다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의해 복음을 듣고 회심한 자들이었다(cf. 행 18:1-19; 고전 3: 6, 10; 4:15).⁷³⁾

72) 장해경, “현대 교회의 거울, 고린도교회”, 『그 말씀』(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통권 191호, 2005. 5), pp. 37.

고린도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 중의 하나였다. 고린도 지역은 로마 행정 구역의 수도였으며, 그리스의 중심지였다. 무역항으로서 중요한 도시였다. 고린도는 보통의 상업도시가 그렇듯이 사치와 오만, 허영, 환락, 만족을 모르는 탐욕, 이기주의 등 모든 악에 사로잡혀있었다. 한마디로 신약 시대의 고린도는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문화가 개방적이며, 종교는 다원적이고 도덕적으로 문란했던 도성으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사회와 가장 많은 특징들을 공유했다고 말할 수 있다.⁷⁴⁾

문제는 이러한 세상의 악들이 교회 깊숙이까지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에 필요한 기강이 크게 악화된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미 순수한 가르침이 타락되어서 신앙의 기초 중의 하나인 죽은 자의 부활이 의문시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거짓 사도들이 그들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용이한 일이었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된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복음의 참 향기가 상실되고, 아쉬움을 넘어서서 황당하기까지 한 고린도 성도들의 문제를 접한 바울은 문제투성이인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을 진리의 말씀과 믿음 위에 굳게 세우기 위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게 된 것이다.

2. 문법적 접근

문법적인 접근을 통해 본문의 문맥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한 소식을 구두로 전해 듣거나(cf. 1:1; 5:1; 11:18)

73) 허주, “설교자를 위한 고린도전서 구조와 신학”, 『그 말씀』(서울 : 도서출판 두란노, 통권 191호, 2005. 5), pp. 26.

74) 장해경, op. cit., pp. 37.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은 서신(cf. 7:1, 25; 8:1; 12:1; 16:1, 12)의 질의에 대한 응답으로 기록한 서신이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답변을 기록한 편지이다. 그 문제들이란 교회의 분열과 바울의 사역에 대한 오해(1-4장), 근친 상간과 간음죄를 비롯해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들(5장), 법정에서 다른 성도들을 송사하는 비그리스도적인 행위(6장), 결혼과 약혼에 대한 금욕주의(7장),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일(8:1-11:1), 공적 예배에서 머리에 쓰는 일과 성령의 은사 사용(11:2-14:40),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일(15장) 등이다.⁷⁵⁾

고린도전서 1:18-25은 교회의 분열 원인에 대한 설명(1:10-4:21) 부분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특히 기독교 메시지에 대한 오해(1:18-2:16)에 관한 논쟁의 일부이다. 당시 바울과, 아블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등으로 나뉘어 서로 교만에 빠져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내세운 것이다. 그는 세상의 모든 지혜를 배척하고 십자가의 복음만을 굳건히 세우기를 원하고 있다.⁷⁶⁾ 이는 곧 분열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못 해석한 그들의 무지에 있음을 말해준다.

바울의 핵심 사역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다. 십자가가 선포될 때,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으로 나타난다. 즉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자들’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다(1:18).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폐하시고 멸하신다(1:19). 세상 지혜자를 대표하는 유대의 율법학자들과 헬라의 변론가들이 설 땅은 없다(1:20). 그 이유는 분명하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1:21a). 세상의 지혜는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스스

75) 강병도 편, 『호크마 종합 주석 7』 (서울 : 기독교회사, 1999), pp. 14.

76) 존 칼빈, *op. cit.*, pp. 8-33.

로 깨닫고 영광을 돌리게 못한다(cf. 롬 1:21).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꾸는 우상 숭배라는 어리석음의 극치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케리그마’라는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다(1:21b). ‘케리그마’는 바울의 설교에 대한 내용과 형식을 모두 포함한다. 곧 십자가를 단순하게 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⁷⁷⁾

결론적으로 본문의 문맥에서 ‘십자가의 도’가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인 모두가 하나님을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리스도는 나뉘지 않는 온전한 분이므로 분과를 초월해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교회의 일치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를 둔다. 인간을 구원하시고 거룩케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은 그리스도 단 한 분뿐이시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등으로 나뉘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cf. 1:12; 3:3-4)에 대해 권고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다(cf. 1:10).

3. 신학적 접근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동일하게 유용성이 있다고 한다면, 기독교인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 말씀을 비롯한 고린도전서

77) 홍인규,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 『그 말씀』(서울 : 도서출판 두란노, 통권 191호, 2005. 5), pp. 45.

의 말씀 또한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문제를 해결함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본문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의 참된 믿음을 위해, 특별히 분열됨을 하나로 회복하기 위한 권면의 말씀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십자가의 도를 강조한다. 이는 고린도전서의 핵심이자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바울은 서신서 전체에 걸쳐 고린도 성도들이 ‘구원(칭의) 그 이후의 삶(성화)’으로 마땅히 나가야 할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교훈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의미에 기초한다. 말하자면, 마지막 종말론적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 백성이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길로 초청받게 된 사실과 그에 따른 감사와 감격이 성도들의 여러 현안 문제들을 푸는 열쇠가 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종말의 구원자)의 십자가 죽음’은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 모두에게 ‘복음/구원’의 소식이 아닐 뿐 아니라 이것은 실제로 그들에게 거침돌이요 미련한 것이었던 것이다(1:22).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계시된 사건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이다(1:18-2:16). 따라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메시지에는 기독교론(특히, ‘지혜-기독교론’)과 구원론과 성령론 그리고 종말론과 인간론이 상호 깊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⁷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눈으로는 어리석게 보일 뿐이다(18-24절). 유대인의 눈에는 부끄러움과 거리낌이 되는 일이고 헬라

78) Ibid., pp. 30.

인의 지혜로 볼 때는 어리석은 것뿐이지만, 이 십자가야 말로 하나님의 참 능력이시고 참 지혜이다. 왜냐하면 지혜는 말이 아니라 내용과 능력으로 판단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는 불신자들에게는 비록 미련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생명을 구원한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는 아무리 고상하고 놀라운 것일지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며 결국 멸망을 자초한다.⁷⁹⁾

이상의 내용에서 본문을 통해 바울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이는 곧 하나님의 지혜로서 세상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바울은 복음 전파에 있어 오직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 하며, 십자가 아래서 일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바울의 강조에 따르면 오늘날 설교의 내용 역시도 그리스도가 핵심이어야 함을 깨닫게 된다.

79) 강병도 편, *op. cit.*, pp. 43.

V. 결 론

한국의 개신교는 개혁자들의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말하면서 정작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는 개혁자들의 전통으로부터 일탈한 감이 없지 않다. 많은 설교에 대한 부담감과 전형적인 제목 설교의 틀 속에서 성경 본문 이해를 위한 진지한 노력에 소홀히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본 논문은 바른 성경의 이해를 위한 성경 해석 방법론을 제시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칼빈의 성경 해석 방법론을 고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나름의 성경 해석 방법론을 개진하였다. 또한 그 성경 해석 방법론에 근거하여 성경 해석 실제로 고린도전서 1:18-25을 상고하였다.

칼빈이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처럼 성경 해석에 있어 하나님께서 성경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는데 지침이 되는 객관적인 방법론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본 논고에서는 성경 해석 방법을 역사적 접근(Historical Approach), 문법적 접근(Grammatical Approach), 신학적 접근(Theological Approach)의 3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역사적 접근은 성경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연구하고 검토함으로써 본문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성경은 특수한 역사적 정황 가운데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적 배경을 살피는 것은 성경 본문 이해에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문법적 접근은 성경 본문의 문학적 배경을 고찰함으로써 본문의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한 작업이다. 본문의 언어 분석 및 문맥 관계 연구 등 다양한 문법적

접근을 통해 성경 본문의 의미는 더욱 분명하게 될 것이다. 신학적 접근은 성경 전체의 신학적 전망과 본문의 신학적 내용의 유기적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본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때론 성경의 총체적 신학적 배경에 비추어 성경 본문의 의미가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다.

성경 본문 해석에 있어 흔히 범하는 과오 중의 하나는 해석자가 성경 저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해석자의 주관적인 관심사를 성경 해석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해석자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사상으로 인하여 본문의 본래 저작 의도를 읽어내는데 실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읽기보다도 해석자가 원하는 것을 읽어내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아무쪼록 제시된 성경 해석 방법을 통해 성경을 보다 쉽고, 그리고 깊이 있게, 무엇보다 올바르게 성경을 읽고 해석하여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해 본다.

참 고 문 헌

1. 국내서적

- 곽안련, 『설교학』,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99
- 박형용, 『성경 해석의 원리』, 서울 : 도서출판 엠마오, 1991
- 신학교재 편찬위원회 편, 『간추린 성경 해석학』, 서울 : 세종 문화사, 1975
- 안명준, 『칼빈의 성경 해석학』, 서울 : 기독교문서 선교회, 1997
- 이상준, 『영혼을 울리는 설교 개발』, 서울 : 도서출판 서로사랑, 1997
- 이승구, 『21세기 개혁신학의 방향』, 서울 : SFC, 2005
- 한재호, 『성경의 해석과 설교』, 서울 : 도서출판 진리의 깃발, 1996
- 장두만, 『성경의 무오성과 권위』, 서울 : 요단 출판사, 1991

2. 번역서적

- 벌코프 루이스, 『성경 해석학』, 윤종호, 송종섭 역, 서울 : 개혁주의신행협회, 2004
- 벌코프 루이스, 『기독교 신학개론』, 신복윤 역, 서울 : 성광문화사, 1996
- 램 버나드, 『성경해석학』, 권혁봉 역,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74
- 칼빈 존, 『기독교 강요(상)』, 김종흡, 신복윤, 이종성, 신철하 공역,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98
- 윌리엄슨 G. I.,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나용화 역, 서울 : 개혁주의 신행협회, 2006

3. 논문자료

- 박찬수, 『성경 해석과 그 적용』,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윤대석, 『Dickson의 히브리서주석을 통한 개혁주의 성경해석의 원리연구』,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함윤길, 『개혁자들의 성경 해석 원리와 실제에 관한 연구』,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4. 학술지

- 손석태, “칼빈의 성경해석”, 『칼빈과 개혁신학』, 광신대학교 출판부, 1999
- 박형용, “문법적-역사적 해석방법의 우월성”, 『성경과 신학』,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Vol 2, 1944
- 장해경, “현대 교회의 거울, 고린도교회”, 『그 말씀』, 서울 : 도서출판 두란노, 통권 191호, 2005. 5
- 허주, “설교자를 위한 고린도전서 구조와 신학”, 『그 말씀』, 서울 : 도서출판 두란노, 통권 191호, 2005. 5
- 홍인규,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 『그 말씀』, 서울 : 도서출판 두란노, 통권 191호, 2005. 5

5. 주석류

- 강병도 편, 『호크마 종합 주석 7』, 서울 : 기독교 지혜사, 1999
- 칼빈 존, 『성경주석 19』, 존 칼빈 성경주석 출판위원회 역, 서울 : 성서원 1999

6. 사전류

- 기독교 대 백과 사전 편찬위원회 편, 『기독교 대 백과 사전 Vol. 9』, 서울 기독교문사, 1984
- 종교학사전 편찬위원회 편, 『종교학 대사전』, 서울 : 한국사전연구사, 1998